



KAWASAKI CITY
川崎市

가와사키 시
川崎市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
뉴스레터

뉴스레터 No.37

편집 · 발행 : 시민 · 어린이국 인권 · 남녀공동참여실

2009년 9월 31일 발행

2009년 11월 6일 개정

<http://www.city.kawasaki.jp/25/25zinken/home/gaikoku/index.htm>

여러분의 목소리를 시정에 ! 2008년도 연차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2009년 4월 17일, 제7기 조용제 위원장과 에록 하리마 부위원장이 시장에게 2008년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1년간의 활동내용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7기 대표자회의에서는 "교육문화"와 "사회생활" 2개의 위원회로 나누어, 어린이의 학습지원과 의료지원 등 열심히 심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6월 2일에는 시의회 시민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2008년도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참고인 초빙은 시민위원회가 대표자회의의 의견을 듣고, 조사 등에 참고로 하기 위해 매년 행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의 위원장에게는 '외국인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서 개개인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7기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의 임기가 남은 반년, 제언만들기를 위해 조사와 심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페스티벌 · 시민축제 · 오픈회의의 알림



시민과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9년 후반기에는 이벤트에의 참여와 오픈회의를 개최합니다. 다문화페스타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교류하는 축제입니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음식노점을 마련하여, 물만두 · 새우전병 · 루마니아의 스프 · 필리핀의 디저트로 다문화를 맛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축제에서는 대표자회의의 현재까지의 활동을 전달함과 동시에, 세계의 결혼식과 정월에 관한 판넬 전시, 세계의 게임과 놀이의 소개, 그리고 퍼레이드와 각국의 음악과 춤의 다문화 스테이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픈회의는 제7기 대표자회의의 의논을 소개하고, 일본인 시민 · 외국인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회의입니다. 종료후에는 조출한 파티 (무료)가 열립니다. 부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페스티벌 미조노쿠치

10월 24일 (토)

타카초시민관 노쿠티 2 옥상

(미조노쿠치 · 무사시 미조노쿠치역)

10시 30분 ~ 15시 30분

☆가와사키 시민축제

10월 31일 (토), 11월 1일 (일)

가와사키구 후지미공원

(가와사키역 도보 15분)

10시 ~ 16시

☆오픈회의

11월 29일 (일)

타카초시민관 노쿠티 2 12F

(미조노쿠치 · 무사시 미조노쿠치역)

14시 ~ 17시

대표자회의 심의개요



제 1년 제 4회 제 2일 (2월 22일)

- 교육문화위원회
 - 외국과 관련이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역에서의 일본어·학습지원을 검토
 - 어린이·보호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충실
- 사회생활위원회
 - 의료통역제도에 대해
 - MIC 의료통역세미나의 참가보고
 - 전문통역과 회화보조통역의 역할분담을 검토

제 2년 제 1회 제 1일 (4월 19일)

- 교육문화위원회
 - 외국과 관련이 있는 어린이와 고교진학에 대해
 - 현내 거주 외국인의 특별모집 등 특별한 수험제도에 대해
- 사회생활위원회
 - 공생사회에 대해 (다문화 공생과 일본의 상황)

제 2년 제 1회 제 2일 (5월 10일)

- 교육문화위원회
 - 시내의 외국인 중고생과 진로에 대해 조사보고
- 사회생활위원회
 - 다문화 소셜위커에 대해
 - 입국관리 행정에 대해

제 2년 제 2회 제 1일 (6월 14일)

- 교육문화위원회
 - 외국과 관련이 있는 어린이들의 학습지원에 대한 의논의 정리
 - 다문화 이해에 대해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역에 있어서의 다문화 이해 등)
- 사회생활위원회
 - 다문화에 관한 다양한 인재의 육성과 활용에 대해

제 2년 제 2회 제 2일 (7월 12일)

- 교육문화위원회
 - 다문화 이해 분야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제언과, 제 7기에서 현재까지 나온 의견의 검토
- 사회생활위원회
 - 외국인 시민 상담의 현상에 대해
 - 소셜위크의 현장과 인재에 대해

지금까지의 회의를 되돌아보며

우에다 신샤 (교육문화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일본어·학습지원 등의 기간을 더욱 늘렸으면 좋겠다고 자주 논의했습니다. 학습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어린이의 일본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원을 통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언어가 미숙한 외국인에게 있어서는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심의에서는 의료정보의 간단한 접근, 병원에서 일본인과 동일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통역 및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의 준비와 체제·구조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시장에 제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에 관해서는, 국제화가 되고 있는 일본의 사회에서는 외국인 시민의 문제해결을 위한 인재의 육성과 능숙한 활용이 필요합니다.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인재의 육성, 구조를 만들고, 외국인에게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다카리 스티브 (사회생활위원회)

‘지금까지는 크게 두가지의 테마로 심의를 해왔습니다. 1. 외국인에 대한 의료지원에 대해, 2. 다문화에 관한 인재양성에 대해.

의료란 사람들의 목숨과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



★ 2009 년도 연간일정 ★

☆가와사키시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 시간 :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소 :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토요코선 모토스미요시역 도보 10분)
 제 3 회 제 1 일 9 월 27 일 (일) 제 2 일 12 월 20 일 (일)
 제 4 회 제 1 일 1 월 24 일 (일) 제 2 일 2 월 21 일 (일)
 ※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부디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픈회의 11 월 29 일 (일)
 장소 : 타카츠키시민관 (노쿠티 2 12F, JR 무사시 미조노쿠치, 토큐선 미조노쿠치역)
 시간 :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대표자가 의견교환을 하는 열린회의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를 조심합시다

2009 년 봄부터 신형 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시내에서도 이미 1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손을 잘 씻고 가글을 하는 등 계속해서 조심합시다.

발열, 목안의 아픔,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기 전에 발열 상담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와사키시 국제교류협회의 홈페이지에서는 다언어로 신형 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kian.or.jp/topics/swine-flu-virus.html>) .

《평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 가와사키구청 보건복지센터 전화 044-201-3189
- 사이와이구청 보건복지센터 전화 044-556-6715
- 나카하라구청 보건복지센터 전화 044-744-3104
- 타카츠키구청 보건복지센터 전화 044-861-3341
- 미야마에구청 보건복지센터 전화 044-856-3217
- 타마구청 보건복지센터 전화 044-935-3217
- 아사오구청 보건복지센터 전화 044-965-5218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 건강복지국 건강안전실
- 전화 044-200-2692



학교입학 교육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과 연관있는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편입할 때, 종합교육센터에서 전문적인 교육상담과 일본어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2009 년 8 월부터 종합교육센터와 연계하여 각 구·교육담당에서도 교육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일본어 서포트가 필요한 어린이들의 편입학 상담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와사키시 종합교육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와사키시 종합센터
 해외귀국·외국인 아동학생 교육상담실
 전화 : 044-844-3733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 제 8 기 대표자 모집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는 서로 이해하고, 보다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1996년 조례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외국인 시민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 여러 문제들 가운데 테마를 정해, 조사·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받아들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입기 :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의 2년간

활동내용 : 연 8회 정도의 회의에 참여 (회의는 기본적으로 일요일에 열리며, 일본어로 행해집니다)

응모할 수 있는 사람 : 가와사키 시내에 1년 이상 외국인등록을 하고, 18세 이상인 사람

응모방법 : 2010년 1월 15일까지 응모용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소인 유효)

* 응모용지는 10월부터 구청·시민관·국제교류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자회의 홈페이지 (<http://www.city.kawasaki.jp/25/25zinken/home/gaikoku/kaigi>) 에서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등이 있으면, 아래의 <문의>에 기꺼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의 다문화 공생체험

제 3 회

■ 한국·조선인의 비애



나의 아버지 (권해술)은 1914년 한국 경상북도에서 태어났다. 일본의 태평양전쟁 중에 일본에 입국하여 홋카이도의 탄광노동을 시작으로 각지를 전전하였다. 전후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에 살 곳을 정하고, 나의 어머니 (이명순)와 가정을 꾸렸다. 아버지는 양돈업과 낄팍팔이 일

꾼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며 4명의 자식을 키웠다. 일가친척이 없는 아버지에게는 유일하게 한국에 남아있던 누이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일본에 입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방불명이 되었다. 북조선으로 갔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고모의 소식을 찾는 것이 나의 평생의 과제이다.

조국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은 “끝이 보이지 않는 꿈”이라 할 수 있다. 정치경제의 움직임이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있어도, 민중의 통일에 대한 바람은 깊이 침전한 거대한 마그마같이 존재하고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권순덕)

■ 루마니아에서 일본으로 10년



안녕하세요. 센다 마리야나 오아나입니다. 10년전 루마니아에서 일본으로 왔습니다. 일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온 것도 있고,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언어의 차이, 문화

의 차이, 음식의 차이 등등, 너무 많은 차이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지 가족의 지원, 친구의 친절함, 주위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서서히 이들 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일본인과 동일한 음식, 동일한 생활을 함으로써, 점점 일본인의 마음을 알게 된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음식 중에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것은 고기감자찜이었는데, 그것에서 간장의 맛을 맛있게 느끼게 되었고, 다른 일본요리도 맛있게 느끼기 시작해, 지금은 낫토도 마요네즈를 뿌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가지 차이는 일본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여, 그것에서부터 차이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멋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문화를 지키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약한 입장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와사키시는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를 만들어 외국인에 대해 생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힘을 합쳐 아주 좋아하는 가와사키시를 위해 일본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센다 마리야나 오아나)



< 문의 > 가와사키시 시민·어린이국 인권·남녀공동참여실 (川崎市市民・こども局人権・男女共同参画室)
 우 210-8577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미야모토초 1 (〒210-8577 川崎市川崎区宮本町 1)
 Tel : 044-200-2359 Fax : 044-200-3914 E-mail : 25gaikok@city.kawasaki.jp
 대표자회의와 뉴스레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감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